

해외출장 복명서

출 장 자	소 속	성명 및 직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명선 원장 이미정 연구위원 장은하 부연구위원 황애리 행정원	
출장기간	2015.6.29. - 2015.7.4.(4 박 6 일)	출장지	프랑스 파리
출장목적	<div> <div>□ 여성 폭력 방지 및 안전, 성인지적 재난관리정책 등 여성의 특수적 위험 관리에 대한 정책지원 및 국제교류 협력</div> <div>□ 프랑스 국립학술원(CNRS) 컨퍼런스 참석 및 주요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을 통한 양성평등정책 거버넌스를 확장</div> <div>□ 한국과 프랑스 및 주요 선진국의 정책경험과 미래사회에 대한 전략적 방안을 공유함으로써 선도적인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div> </div>		
소요예산	약 19,941,800원		
방문기관		면담자	논의사항
프랑스 국립학술원 (CNRS)		CNRS 인문사회과학국장 파트리스 부들레(Patrice Bourdelais) 외	프랑스국립학술원/경제사회인문연구회 합동 컨퍼런스 개최
OECD 개발협력국	고위급 정책 간담회	-패티 오닐 (Patti O'Neill) 개발협력국 국제협력정책부장 -에밀리 에스플렌 (Emily Esplen) 개발협력국 국제협력정책부 양성평등정책분석관 -루시 포셰르 (Lucy Faucherre) 개발협력국 국제협력정책부 양성평등정책분석관	-현 OECD 젠더넷의 현황 및 중점 사업에 대한 개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소개 및 한국 ODA 에의 성주류화 노력 소개 -향후 협력 분야 및 방안 논의
	실무급 정책 간담회	-안젤리카 살비 델 페로 (Angenlica Salvi DelPero), 김현숙(Hyunsook Kim) OECD 고용노동사회문제국 정책분석가 -게이코 노와카 (Keiko Nowacka) OECD 개발센터 사회제도 및 젠더 인덱스 담당 -에이미 니콜스(Aimee Nichols), 올리비에 부르제(Olivier Bourget) OECD 통계국 젠더 마커 담당	-OECD 고용노동사회문제국의 양성평등 연구 소개 및 분석 결과 공유 -사회제도젠더인덱스 소개, 활용방안, KWDI 와의 향후 협력 방안 논의 -한국의 젠더마커 개선에 관한 실무 차원의 심층 면접 진행
UNESCO 본부 양성평등국		-사니예 굴세르 코랏(SANIYE GULSER CORAT) UNESCO 양성평등국장 -츠베탄 츠베크프스키 (Cvetan Cvetkovski) UNESCO 양성평등국 선임기획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반 및 교육관련 연구 소개 -UNESCO 의 성주류화 노력 소개 -향후 협력분야 제시
프랑스 사회문제·보건·여성 권익부		-오로르 샤도네 (Aurore CHARDONNET) 여성권익부 국제협력담당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및 한국의 주요 여성정책 소개 -프랑스 여성권익부 조직 및 정책활동 소개 -향후 연구교류협력을 위한 방안 모색

출장 보고서

프랑스 국립학술원(CNRS)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NRCS) 합동 컨퍼런스 개최
및
파리 주재 양성평등 관련 국제기구 및 정부 기관과의
정책간담회

2015. 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양성평등추진전략단·국제개발협력센터

I 출장 개요

1 출장 배경 및 필요성

□ 출장 배경

- 2014년 5월 서울에서 프랑스 국립과학원(CNRS)와 한국 경제사회인문연구회(NRCS)의 공동 주최로 산업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여성정책연구원이 참여하는 합동 학술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음. 당시 우리원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주제로 홍승아, 김영옥 연구위원이 발표한 바 있음.
- 이에 대한 후속 협력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프랑스 파리에서 합동 학술 컨퍼런스를 개최함. 올해에도 작년과 동일하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산업연구원, 한국 여성정책연구원이 경제사회인문연구회와 함께 참석함
- 파리에 OECD, UENSCO 등 양성평등 실현을 주요 정책 과제로 채택하고 있는 국제기구가 주둔해 있으며, 일가정 양립과 출산률 제고에 있어서 선진적인 정책을 수립·실행하고 있는 프랑스여성권익부가 주재해 있음. 이러한 기관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하여 선진 정책을 공유하고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출장 필요성

- 여성 폭력 방지 및 안전, 성인지적 재난관리정책 등 여성의 특수적 위험 관리에 대한 정책지원 및 국제교류 협력
- 프랑스 국립과학원(CNRS) 및 주요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양성평등정책 거버넌스의 확장.
- 한국과 프랑스 및 주요 선진국의 정책경험과 미래사회에 대한 전략적 방안의 연구를 공유함으로써 선도적인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

2 출장 목적 및 일정

□ 출장 목적

- 프랑스 국립과학원(CNRS)와 경제사회인문연구회(NRCS) 합동 컨퍼런스 개최 및 발표
- OECD GENDERNET, UNESCO 양성평등국 등의 주요 국제기구 및 프랑스 사회문제·보건·여성권익부와의 정책간담회를 통한 양성평등정책 전략 논의

□ 일정, 장소 및 출장자:

- 장소: 프랑스 파리
- 출장자: 이명선 원장, 이미정 연구위원, 장은하 부연구위원, 황애리 행정원
- 출장기간
 - 이명선 원장, 장은하 부연구위원, 황애리 행정원:
2015. 6. 29(월) ~ 7. 4(토) (4박 6일)

- 이미정 연구위원:

2015. 6. 29(월) ~ 7. 2(목) (2박 4일)

○ 비용부담: 본원 일반 사업비

□ **과제명:** 2015년 양성평등추진전략사업, 국제협력 활성화 사업

3

세부 일정

- 본 출장은 6월 30일(화) 프랑스 국립학술원(CNRS)과의 합동 컨퍼런스, 7월 1일(수) OECD 개발협력국과의 고위급 및 실무급 정책간담회, 7월 2일(목) OECD 통계국 심층면담, UNESCO 양성평등국과의 정책간담회, 7월 3일(금) 프랑스 사회문제·보건·여성권익부와의 정책간담회 등의 일정으로 진행됨.

일자	내용	체류지
6.29(월)	○ 인천공항 출발(13:20) - 이명선원장, 이미정 연구위원, 장은하 부연구위원, 황애리 행정원 (총 4명) ○ 파리 샤를르 드골 공항 도착(현지 18:20)	파리
6.30(화)	○ 프랑스 국립학술원(CNRS)과의 합동 컨퍼런스 (09:00-19:00)	파리
7.1(수)	○ OECD 개발협력국과의 정책간담회 - 고위급 정책간담회 (15:30 - 16:15) - 실무급 정책간담회 1, 2 (16:15 - 17:00) (이미정 연구위원 귀국 현지 21:00시)	파리
7.2(목)	○ OECD통계국 심층면담 (11:00 - 12:00) ○ UNESCO 양성평등국과의 정책간담회(14:00-15:00)	파리
7.3(금)	○ 프랑스 사회문제·보건·여성권익부와의 정책간담회 (11:00-12:00) ○ 파리 샤를르 드골 공항 출발(현지 21:00) - 이명선원장, 장은하 부연구위원, 황애리 행정원 (총 3명)	파리
7.4(토)	인천공항 도착(15:00)	서울

II

프랑스 국립학술원(CNRS)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S) 합동 컨퍼런스

1

일시 및 장소

- 일시: 2015년 6월 30일 (화)
- 장소: 프랑스 국립과학원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CNRS) 내 Salle(Room) Jean Perrin
- 참가자: 프랑스 국립과학원 소속 학자 및 경제사회인문연구회(한국 산업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여성정책연구원) 소속 학자 약 40명

2

내용 및 세부일정

- 본 컨퍼런스는 CNRS 인문사회과학국장 파트리스 부들레(Patrice Bourdelais)의 환영사와 한국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강은봉 사무총장의 축사, 이시형 주 OECD 한국 대표부 대사의 기조연설로 시작됨. 이어 프랑스 국립과학원의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부국장인 샹탈 칸말렉(Chantal KHAN-MALEK)이 CNRS의 국제적 연구협력 활동을 소개함.
- 본 컨퍼런스는 "세션1: 공간적 불평등 및 역동성," "세션2: 성주류화," "세션3: 인간과 기계의 interaction" 의 세 주제로 나뉘어 한국, 프랑스의 학자가 발표하고 전체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됨.
- 본원의 이미정 선임연구원과 장은하 부연구위원은 "세션2: 성주류화"에서 각각 "한국의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노력" 그리고 "한국의 재난관리정책에 있어서의 성주류화"의 주제로 발표함.
 - 이미정 선임연구위원은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에 있어서의 한국의 법, 정책 발전 과정과 실행에 대해 심도 분석을 토대로 발표를 수행함.
 - 장은하 부연구위원은 자연재해 복구 과정에 있어서의 개발도상국의 양성평등적 변화 달성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재난관리 정책의 성주류화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발표함.
- CRNS-NRCS 합동 컨퍼런스는 다음과 같은 세부일정으로 진행됨.

Program	
Opening 9:00~10:00	Welcoming Address : Patrice Bourdelais, InSHS Congratulatory Address : Secretary General of NRCS, Eun Bong KANG Keynote lecture: Korean OECD Ambassador Sihyung Lee Presentation of CNRS International Cooperation: Chantal KHAN-MALEK Opening Remarks by DoHoon KIM (KIET), Sandra LAUGIER and Pascal MARTY (InSHS)
Session 1 10:00~13:00	(Session 1) Spatial Inequalities and Dynamics Chair: Pascal MARTY "The idea of spatial justice," Pr. Philippe GERVAIS-LAMBONY (Université Paris Ouest)

	<p>"Spatial Concentration of Korean Economy," Chang-Uk BYEON, NRCS Research Fellow, KIET</p> <p>"Justice and geography: a rawlsian theory of territories," Pr. Bernard BRET (Université Lyon III)</p> <p>Discussant, Jongchol MOON, Associate Research Fellow, KIET</p>
	Short Break(11:20~11:35)
	<p>Chair: Sandra LAUGIER</p> <p>"Territory, inequality, and discriminations," Pr. Lydie LAIGLE (CSTB, Paris-Est)</p> <p>"Pension Reform and the Future of Old-age Income," Hae Bong WOO, Research Fellow, KIHASA</p> <p>"Gender Inequalities in Contemporary Cities," Dr. Sophie LOUARGANT(Pacte, Grenoble)</p> <p>Discussant, Jongchol MOON, Associate Research Fellow, KIET</p>
13:00	Lunch (salon d'honneur)
	(Session 2) Gender Mainstreaming Chair: Marie Gaille
Session 2 14:10~15:45	<p>"Low Fertility and Gender Inequality in Korea," Yoon-Jeong SHIN, Research Fellow, KIHASA</p> <p>"Efforts to Prevent Violence against Women in Korea," Mijeong LEE, Research Fellow, KWDI</p> <p>"Policy Response to Family Change in France," Marie-Thérèse LETABLIER</p> <p>"Mainstreaming Gender in South Korea's Disaster Management," Eun Ha CHANG, Associate Research Fellow, KWDI</p> <p>Discussants Professor Emiko OCHIAI / Dr. Younga KIM (Centre Halbwachs)</p>
15:45~16:00	Coffee Break
	Session 3 Human/machine OInteraction
Session 3 16:00~18:30	<p>Chair : DoHoon KIM (KIET)</p> <p>Keynote Lecture: "Human/machine interactions," Michel BEAUDOIN-LAFON (CNRS, LRI)</p> <p>"Smart Healthcare Technology and Human Behavior," Youn Hee CHOI, Research Fellow, KIET</p> <p>"Thinking (with) Human Enhancement: Edouard KLEINPETER</p> <p>Short Break (17:10 – 17:20)</p> <p>Chair: Pascal DAYEZ BURGEON</p> <p>"Nao," Pr. Pierre CASSOU-NOGUES (Université Paris 8 St Denis)</p> <p>"My friend, the robot," Dr. Dominique LESTEL (PSL, ENS)</p> <p>"Digital Art as experimentation of Human/Machine interface," Philippe CODOGNET, CNRS, JFLI</p> <p>General Discussion: Pascal DAYEZ BURGEON</p>
	Closing Remarks by Patrice BOURDELAIS (InSHS) and DoHoon KIM
7:30	Dinner (Restaurant Mouton Blanc)

- 본 컨퍼런스를 통해 현재 CNRS에서 수행하는 주요 연구 주제 및 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음. 프랑스는 지리학에서 불평등 이슈를 논할 만큼 학계 전반에 있어서 불평등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음. 또한 현재 프랑스 가족 정책은 아동과 양육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으며, 이에 실행방안을 수립 중인 것으로 확인됨. 또한 기계와 인간간의 교류에 대한 철학적 의미를 탐구하는 작업을 통해 기술의 진보 이면에 있는 인간 소외 현상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본원의 연구진의 이번 컨퍼런스 참여와 발표를 통해 한국의 여성정책을 소개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며, CNRS 측에서도 본원의 연구 주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해 옴에 따라 향후 연구 교류 및 협력의 기틀을 마련함.



□ OECD 개발협력국(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orate) 및 OECD 개발협력위원회(DAC) 산하 젠더넷(GENDERNET)

○ 방문 일시 및 면담자

- 일시: 7/1(수), 15:30 ~ 17:00
- 고위급 회의 (15:30 – 16:15)
 - 패티 오닐 (Patti O'Neill) 개발협력국 국제협력정책부장
 - 에밀리 에스플린(Emily Esplen) 개발협력국 국제협력정책부 양성평등정책분석관
 - 루시 포셰르 (Lucy Faucherre) 개발협력국 국제협력정책부 양성평등정책분석관
- 실무진 회의 1 (16:30 – 17:00)
 - 안젤리카 살비 델 페로 (Angenlica Salvi Del Pero), 김현숙(Hyunsook Kim)
 - OECD 고용노동사회문제국(Director for Employment, Labour, and Social Affairs) 정책분석관
- 실무진 회의 2 (17:00 – 17:30)
 - 게이코 노와카 (Keiko Nowacka)
 - OECD 개발센터(Development Center) 사회제도 및 젠더 인덱스 (Social Institutions and Gender Index) 담당
- 실무진 회의 3 (7/2(목), 11:00 – 12:00)
 - 에이미 니콜스(Aimee Nichols), 올리비에 부르제(Olivier Bourget)
 - OECD 통계국 젠더 마커 담당관

○ 기관 소개

- OECD 개발협력국(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orate)은 OECD 회원국의 효과적인 정책개발원조 수행을 위해 1) 원조통계를 산출하고, 2) 원조효과성을 평가하며, 3) 원조정책 개선을 위해 지식을 공유하고 4) DAC회원국 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원조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는 부서임.
- OECD 젠더넷(GENDERNET)은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내에서 양성평등을 전담하는 부서로서, 주요 업무로는 1) 주요 국제 개발 아젠다에서 양성평등과 여성의 권리가 포함되고 증진되는 것의 영향력 행사, 2) DAC 회원국의 양성평등원조 추이 추적 및 산출 3) OECD회원국의 개발원조에 양성평등 및 여성의 권리달성 포함 장려 4) DAC 동료검토 과정을 통해 양성평등이 DAC의 핵심 아젠다가 되도록 촉진하는 것 등이 있음.
- 본원은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를 앞두고 OECD에서 개최된 원조효과성작업반 사전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OECD와 지속적이고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OECD 역시 신흥 공여국으로서 한국, 그리고 여성정책에 대한 기여부분에서 본원을 주목

하고 있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사업'이라는 다차년도 ODA 연구과제와 '양성평등 ODA 활성화 방안'이라는 여가부 수탁과제를 수행 중이며, 한국 ODA의 성주류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고 있음.



● **실무진 회의 1 (7/1(수), 16:30 – 17:00) OECD 고용노동사회문제국**

- OECD 고용노동사회국에서는 2012년 고용에 있어서의 양성평등(Gender Equality in Employment)라는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음. 한국의 경우 여성은 취업 후 한동안 일하면서 출산을 미루다가, 출산을 결심하게 되면 노동시장에서 탈퇴하거나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관찰되었음. 북구유럽 국가들처럼 일과 가정의 양립이 용이하도록 하는 정책을 쓰는 국가들이 노동시장 참여율뿐만 아니라 출산율도 높은 것을 볼 수 있음. 일과 가정 중에서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 때 (두 가지가 자연스럽게 양립이 가능할 때) 국가는 여성에게 동등한 기회 제공뿐 아니라 출산율 제고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음.
-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부모에 대한 지원으로 바뀌어야 함. 아버지에게도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 육아와 영유아 교육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음. 부모휴가의 경우 모성휴가는 엄마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특정한 기간의 모성휴가를 보장해야 함. 진보적 국가들은 부성휴가도 보장하고 있음. 유급휴가는 좋은 인센티브임. 부모에게 선택권을 주면, 임금격차로 인해 보통 여자가 휴가를 선택하게 되고, 이는 경력단절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있음.
- 한국의 경우 정책은 매우 좋으나, 정책 실행이 문제임. 부성휴가의 경우 현재 52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는 일본도 비슷한 수치임. 그러나 부성휴가는 현재 5%의 아버지만이 사용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들이 어떠한 고용시장의 한계로 인해 실행되고 있지 못하는 가는 향후 연구 숙제임.

● **실무진 회의 2 (7/1(수), 17:00 – 17:30) OECD 개발센터(Development Center) 사회제도 젠더지표(Social Institution & Gender Index, SIGI) 작성 담당**

- OECD 개발센터는 1962년에 OECD 회원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동등한 위치에서의 지식공유와 정책대화를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플랫폼임. 2015년 현재 25개의 OECD회원국과 18개의 비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OECD 내의 개발관련 연구소임.
- OECD 개발센터에서는 2008년에 처음으로 젠더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으며 이전에는 간헐적으로 젠더 연구가 수행되던 것이, 사회제도젠더지표(Social Institution & Gender Index, SIGI)의 착수(2009)와 함께 개발센터에서의 젠더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 SIGI작성 및 개정은 OECD 개발센터의 젠더 분야 주요 프로그램임. SIGI는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 개정되었으며 지난 해 가을 방콕 UNESCAP 회의에서 발표됨.
- SIGI는 전세계 160개국의 사회규범, 관행, 법에 있어서의 젠더에 기반한 차별을 측정하는 지표임. SIGI는 여아와 여성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다섯 개의 주요 사회경제적 영역을 다루고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음: 차별적인 가족 법규, 신체적 존엄성에의 제약, 남아선호사상, 자원과 자본에의 제약, 그리고 사회적 자유에의 제약임. 법, 관행, 태도가 만들어내는 남녀 차이를 권리와 기회를 중심으로 검토함.
- 사회적 규범을 계량화 하는 작업은 쉽지 않음. SIGI를 통해 원인과 결과를 증명할 수는 없지만, 추세와 관계를 보여줄 수는 있음. 다음 작업으로는 2015년도 연말까지 여성차별과 경제발전의 관계, 인간발전(human development)의 관계를 보여 주려 하고 있음.

● **실무진 회의 3 (7/2(목) 11:00) OECD 통계국 젠더 마커 담당 부서**

젠더 마커(Gender Equality Policy Marker)의 기입 절차

- OECD 공여국이 젠더 마커를 기입하여 제출하며, OECD는 이 자료를 받아 코딩이 OECD의 룰에 적합한지 확인함. 그러나 제출한 자료에 기입된 마커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여국 현장직원과 확인하는 등의 작업은 하지 않음.
- OECD 공여국은 ODA 통계를 Credit Reporting System(CRS) Sheet으로 제출하고 있음. CRS 시트는 50 여 개의 칼럼이 있는 엑셀 시트로서 OECD 홈페이지 Statistics의 Methodology 항목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음. "Reporting directives" 와 "Addenda" 항목도 매우 중요한데, 통계 보고 자료를 위한 요구사항이 설명되어 있음. Methodology에는 통계 작성을 위한 질문이 있음. 이 CRS 시트에는 기본적인 프로젝트 정보가 기입이 되며 이는 양다자 지원 여부, 유무상 원조 여부, 프로젝트 설명 등을 포함함. 프로젝트에 대한 긴 설명 칸 후에 젠더마커 칸이 위치하며, 각 공여국 별로 담당자가 있어서 이 CRS 엑셀 시트를 보내옴. 한국의 경우 OECD 대표부에서 최종본을 보내주었으며, 한국 수출입은행

에서 시트 작성을 위한 질문을 해 줌.

- 어떤 프로젝트가 젠더 마커 1에 해당되고, 어떤 것이 2에 해당되는가에 대해 실무 부처 직원의 인식을 제고하는 훈련이 필요함. 이번 여름에 OECD 젠더넷에서 2 페이지짜리 젠더마커 가이드라인을 제작할 예정인데, 이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담당자들을 훈련시키면 좋을 것임.
- 젠더마커는 무엇보다 정보(information tool)의 도구임. 정보의 질을 보장. 즉, 젠더마커 적용 랭킹을 보고, 한 나라가 어디쯤에 위치하는 지를 알 수 있음. 젠더마커는 또한 성인 지적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위해 대화를 유도하는 좋은 도구로 쓰일 수 있음. 개발협력 정책에 젠더가 주요 사안으로 포함된 국가들의 경우 젠더 마커는 매우 유익했던 것으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음. 또한 젠더마커는 얼마만큼의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측정이 가능하게 해 준다는 측면에서도 유용함. 한 섹터 내에서도 성과를 추적하는 것을 가능케 해 줌.



□ UNESCO 본부 양성평등국

○ 방문 일시 및 면담자

- 일시: 7/2(목), 14:00 ~ 15:00
- 면담자

사니예 코랏 (Ms. SANIYE GULSER CORAT) UNESCO 양성평등국장

츠베탄 츠베크프스키 (Cvetan Cvetkovski) UNESCO 양성평등국 선임기획관

○ 기관소개

-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 기구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인 유네스코는 교육, 과학, 문화 등 지적 활동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인류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유엔전문기구임. 기구 내 양성평등국 (Division of Gender Equality)에서 여아의 교육을 포함하는 양성평등 전반에 관한 주제를 관장하고 있음.

- UNESCO내의 양성평등국은 기관 내 모든 프로그램에 양성평등을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함. 이를 위해 여성이 타겟인 프로그램과 UNESCO의 5개 분야에서 성주류화를 도입한 프로그램이라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음. (5개 분야: 교육, 자연과학, 사회인문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UNESCO에서 착수하는 어떠한 프로그램이든 양성평등적 관점을 도입해야 함. 현재 UNESCO 내에 양성평등활동계획(2014 - 2021)이 수립되어 있음.
- 2007년 34회 총회에서 양성평등을 2008년-2013년 중기 전략의 글로벌 우선순위 중의 하나로 채택함으로써 전기를 마련함. 또 다른 우선순위는 아프리카임. 이 두 글로벌 전략은 2013년에 갱신되어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음.
- 2009년 부임한 이리나 보코바(Irina Bokova) 사무총장은 양성평등 이슈에 있어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으며, 부임한 이후 양성평등을 UNESCO 내의 매우 중요한 정책적 분야로 끌어 올림. 현재 두 번 째 임기를 수행 중이며 (2013-2017) 반기문 이후 차기 유엔 사무총장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음. 양성평등국은 사무총장 직속 부서이며 본부 빌딩 내에서도 같은 층에 자리잡고 있음.
- 양성평등국은 양성평등 이슈에 관한 전사적 기술 자문을 제공하고, 양성평등 제고를 위해 타 부서와 협력함. 세계 우수 대학 총장들과도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고 있음. 양성평등국은 또한 전세계적으로 두 개의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는 팔레스타인의 라발라, 다른 한 곳은 키타샤에 위치하고 있음.
- 본원과 UNESCO 는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온 바 있음. 2 년에 한번씩 열리는 UNESCO 총회에 역대 원장이 위원자격으로 참석한 바 있으며, 본원 이명선 원장은 2015 년 6 월 UNESCO 한국위원회 인문사회·자연과학분과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바 있음.

○ KWDI 교육분야 연구 소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교육 관련 연구를 소개함. 본원은 학교 내 양성평등 교육 활성화 방안, 교과과정 내 양성평등 촉진, 성인지적 교육활동을 위한 교사 훈련 개발, 특수교육에 있어서의 여학생 교육 실태, 다문화 가정 내 교육 복지 증대, 여성과학기술인력 양성 등의 다양한 주제에 있어서 여성과 교육에 관련된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제언을 제공해 왔음.
- 더불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UNESCO(방콕)와 MOU를 기반으로 하여, 2013년과 2014년 국제 공동협력연구를 진행한 바 있음.
 - 2013. Gender, Jobs and Education, UNESCO Bangkok and KWDI.
 - 2014. A Complex Formula, UNESCO Bangkok and KWDI.



□ 프랑스 사회문제·보건·여성권익부

○ 방문 일시 및 면담자

- 일시: 7/3(금), 11:00 ~ 12:00
- 면담자: 오로르 샤도네 (Aurore CHARDONNET) 여성권익부 국제협력담당관

○ 기관소개

- 프랑스에서 여성권익(women's rights)은 매우 정치적인 이슈임. 오랜 기간동안 여성부처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2012-2014년에 프랑수와 올랑드 대통령을 포함하는 고위급의 의지로 여성권익부가 단독으로 수립됨. 그러나 2014년 여성권익을 포괄하는 "포괄적 불평등 법/framework legislation"이 2014년에 통과됨으로서 단독부처에서 한 단계 낮아지면서 사회문제·보건·여성권익부 통합되었음.
- 사회문제·보건·여성권익부는 장애, 가족, 여성의 세 분야로 나뉨. 여성권익부는 빠스칼 부아따르(Pascale Boistard) 차관(Minister of State)의 리더십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본 부에는 30-4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지방마다 포컬 포인트가 있음. 따라서 전체 인력 규모는 70명 정도임.
- 여성권익부에는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의 경제활동, 남녀평등 고위자문위원회(High Council for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의 세 개의 자문 기관이 있음. 이 중 남녀평등 고위자문위원회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직접적인 카운터파트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함. 이 연구소는 5명의 상임직원과 200명의 비상임 연구자로 구성되어 있음. 이 비상임 연구자들은 학자, 노동조합, 시민사회, 그리고 정부 각 부처 공무원 등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가 요청하는 주제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기도 하고, 스스로 주제를 정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정책 제안을 하기도 함. 최종 집필은 연구소의 사무국에서 함.

*남녀평등 고위자문위원회의 전신으로 양성평등 옵저버(Observatory of Parity, OP)가 1999년 설립되었음. 이 단체는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남녀평등에 대한 자문 제공을 하고, 2000

년부터는 정치적 영역에서의 평등법(parity law)의 실행을 모니터해 왔음. 2013년 사회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OP는 "남녀평등 고위자문위원회"로 이전에 비해 확대된 임무로 신설되었음. 고위자문단은 양성평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법안을 검토하고,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법안제정에 있어서 권고하는 역할을 함. 정책 보고서를 발간하고 정책 영향평가 분석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